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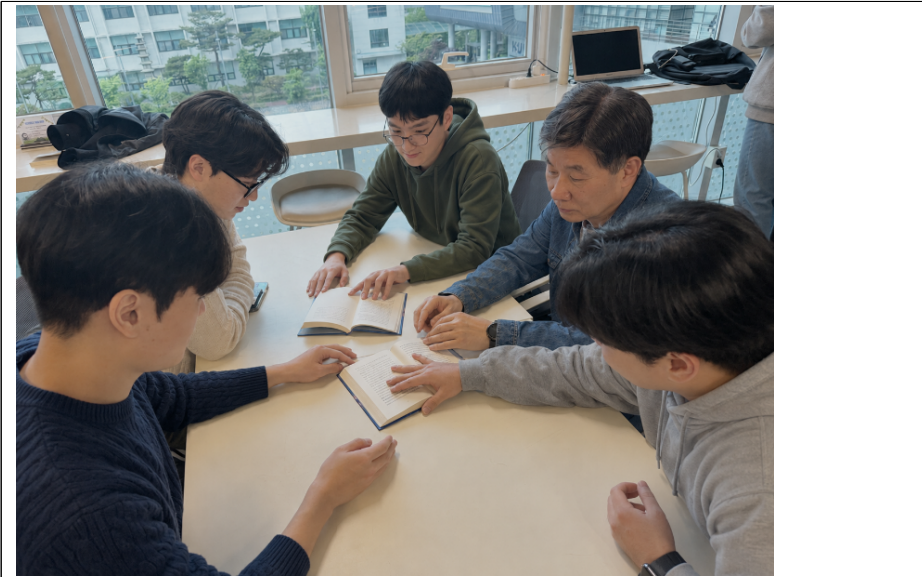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마법천자민

1주차	일시	4월 15일 10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석우(1971377)	0
		김달현(2171453)	0
		김도윤(2171107)	0
천자민(2271004)	0		
진도	도서명: 궤도	진도페이지:	1 p. ~ 65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천자민, 김달현, 김도윤, 조세홍 교수님, 이석우]</p> <p>1주차 토론에서는 『궤도』를 독서클럽 도서로 선정한 이유와 작품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이석우 학생은 『궤도』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한 과학소설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지구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다.</p> <p>김달현 학생은 제목인 '궤도'가 우주정거장의 이동 경로를 뜻하는 동시에 인간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p> <p>김도윤 학생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설정이 평소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생각하던 문제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다. 천자민 학생은 작품을 읽기 전부터 '우주에서 보면 인간의 갈등이나 국경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작품을 통해 지구 공동체라는 관점을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였다.</p> <p>조세홍 교수님은 이 작품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기보다는, 작가가 지구와 인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해주셨다. 또한 우주라는 낯선 공간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다.</p> <p>이번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은 『궤도』가 우주정거장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통해 인간의 삶, 지구의 의미, 공동체 의식 등을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p>		

2주차	일시	4 월 22일 10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석우(1971377)	○
		김달현(2171453)	○
		김도윤(2171107)	○
		천자민(2271004)	○
진도	도서명: 궤도	진도페이지: 66 p. ~ 130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세홍 교수님, 이석우, 김도윤, 김달현, 천자민]</p> <p>2주차 토론에서는 『궤도』의 초반부를 읽고,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과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p> <p>이석우 학생은 작품 속 지구 묘사가 매우 시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말하며, 지구를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행성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김달현 학생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인간이 만든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다.</p> <p>김도윤 학생은 작품의 전개가 일반적인 소설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느린 흐름 덕분에 지구의 모습과 인물들의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자민 학생은 지구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연약함이 함께 느껴졌으며,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p> <p>조세홍 교수님은 작품의 묘사 중심 서술이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지구를 바라보는 인물들의 태도와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또한 독자는 우주비행사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지구를 낯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p> <p>이번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은 작품 초반부가 지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며, 인간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p>		

3주차	일시	4 월 29 일 10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석우(1971377)	○
		김달현(2171453)	○
		김도윤(2171107)	○
		천자민(2271004)	○
진도	도서명: 궤도	진도페이지: 131 p. ~ 195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천자민, 김달현, 김도윤, 조세홍 교수님, 이석우]</p> <p>3주차 토론에서는 작품 중반부를 중심으로 우주비행사들의 내면과 인간관계, 고독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p> <p>이석우 학생은 우주비행사들이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달현 학생은 우주정거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오히려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p> <p>김도윤 학생은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우주정거장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지구에서는 국가나 문화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주에서는 모두가 생존과 임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말했다.</p> <p>천자민 학생은 작품을 읽으며 인간은 어디에 있든 관계와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우주라는 먼 공간에서도 가족, 고향, 지구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살아가고 있는 위치가 바뀌어도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였다.</p> <p>조세홍 교수님은 이 작품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내용 중심에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가 놓여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또한 우주비행사들의 고독은 개인적인 외로움만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씀하셨다.</p> <p>이번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은 『궤도』가 우주와 과학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내면과 관계, 고독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p>		

4주차	일시	5 월 6 일 10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석우(1971377)	○
		김달현(2171453)	○
		김도운(2171107)	○
		천자민(2271004)	○
진도	도서명: 궤도	진도페이지: 196 p. ~ 끝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도운, 조세홍 교수님, 이석우, 천자민, 김달현]</p> <p>4주차 토론에서는 『궤도』 전체를 읽고 작품의 핵심 주제와 독서 후 감상을 종합적으로 나누었다.</p> <p>이석우 학생은 작품을 완독한 후 지구가 인간이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현 학생은 반복되는 궤도와 일출, 일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지구의 질서를 상징하는 요소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p> <p>김도운 학생은 작품에 큰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지구를 반복해서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독자에게 깊은 성찰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존재하는 기후 위기, 자연재해, 인간의 갈등이 대비되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p> <p>천자민 학생은 『궤도』를 통해 인간의 삶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혼자 읽을 때보다 토론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p> <p>조세홍 교수님은 작품 전체를 정리하며, 『궤도』는 우주를 다룬 소설이지만 결국 지구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또한 독서토론을 통해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과정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p> <p>이번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은 『궤도』가 지구의 아름다움과 연약함, 인간의 고독과 연대, 과학기술과 책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독서클럽 활동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은 지구 공동체 의식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이석우 (1971377)	<p>『궤도』를 읽으며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작품 속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지구를 더 깊이 바라보고 소중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우주에서 본 지구는 국경이나 갈등보다 하나의 아름다운 행성으로 묘사되어, 인간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p> <p>처음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 과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삶과 관계,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독서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작품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환경과 공동체 및 생명체에 대해 더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p>
	2	김달현 (2171453)	<p>『궤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반복되는 궤도와 일출, 일몰의 장면이었다. 우주정거장이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인물들이 여러 번의 낮과 밤을 경험하는 모습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시간의 흐름 반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같은 지구를 반복해서 바라보지만 매번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인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p> <p>또한 작품을 읽으며 인간이 만든 국경이나 차이가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작게 느껴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의 차이를 크게 느끼며 살아가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두 같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독서토론은 작품의 의미를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p>
	3	김도윤 (2171107)	<p>『궤도』는 큰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소설은 아니었지만, 지구를 바라보는 묘사와 인물들의 생각을 따라가며 천천히 읽는 재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작품의 전개가 느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작품의 전개가 오히려 작품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우주라는 넓은 공간과 느린 전개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p> <p>특히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우주비행사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지구에서는 국가와 문화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느꼈다.</p>
	4	천자민 (2271004)	<p>『궤도』를 읽으며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설정이 매우 인상 깊었다. 평소에는 지구를 내가 살아가는 익숙한 공간으로만 생각했지만, 작품 속에서는 지구가 아름답고도 연약한 하나의 행성으로 그려졌다. 이를 통해 지구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또한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족, 기억,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을 보며 인간은 어디에 살아 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느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 인간이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의 감정과 그리움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번 독서토론을 통해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지구와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p>